

# “목소리로 감동 주는 세계적 성악가 되겠다”



2023 으뜸인재 <6> 한예중 1학년 박소현씨

고2 때 으뜸인재 선정 뒤 다시 뽑혀 “국제 무대 준비에 큰 힘”  
호남예술제 최고상... 초등생 때부터 재능기부 “후배 도울 것”

“따뜻하고 넓은 그릇같은 선배 음악가,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연습할 겁니다.”

전남도가 올해 선정된 80명의 으뜸인재 중 클래식 분야 예체능 리더로 선정된 박소현(19·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씨는 다부지게 말했다. 박 씨는 고교 2학년 때 으뜸인재로 처음 선정된 뒤 대학생 때 다시 뽑힌 케이스다.

그만큼 음악적 능력은 검증됐다는 얘기가. 목포에서 태어난 박 씨는 세계적 소프라노로 활동하는 꿈을 찾아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젊은 예능 인재다.

접하기 힘든 클래식 무대와 인연을 맺은 건 성악가인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를 따라 무대 위 클래식 연주자들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클래식 성악가의 꿈을 키웠다는 것이다.

“사람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꼈는데, 제 목소리로 청중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감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꿈을 그리는 데 부지런했다. 동요로 연습을 시작했고 수많은 전국 대회 입상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꿈을 그리다’는 주제로 동요 독창회도 열었다.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기회도 가졌고 재능 기부로 행사장 무대에 오르는 일도 생겼다. 특히 재능기부 공연은 좋아하는 성악을 청중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참여한 재능기부 공연만 스무 번이 넘는다고 했다.

정명여중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발성 테크닉을 익히기 시작했고 광양의 한국창의예술고교로 진



학했다.

한국창의예술고는 전남 첫 국립 예술고로, 순수 실용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미디(Midi) 음악, 작곡, 콘텐츠허브, 디자인, 미디어 아트 등 융합 전공 교육으로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고교에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보니 호남예술제(제 67회) 고등부 성악 부문 최고상을 받는 등 여러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게 됐다.

한예중은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훈련시키는 예술 영재 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 으뜸인재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재능지원비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수업 말고도 훨씬 많은 연습과 레슨을 거치며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야 국제 콩쿠르 등 무대에 오르는 실력을 갖추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으뜸인재로 선정되면서 그런 준비를 하는데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었어요. 한예중에 들어갔지만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가량의 수업 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을 했어요. 저같은 학생들에겐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박 씨는 한예중 입학 뒤 하루 3시간 이상 연습실을 찾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9월까지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만 목포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르면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적 콩쿠르 등에 나서기 앞서 전문 연주자로서 자신만의 색깔로 해석하려면 남들보다 더 오페라나 가곡 악보를 자주 들여다보고 연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성이 받쳐 주지 않으면 누구도 제 노래를 들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 연습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1~3학년 때는 많은 곳을 연습하고 마스터해가며 소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예요. 음악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개성과 창의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페라나 여러 가곡을 누구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마스터하는 데도 집중하고요.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콩쿠르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박 씨는 전남 출신 성악가로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으뜸인재로 선정된 게 한예중 합격에 큰 힘이 됐는데, 저도 후배들에게 비슷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으뜸인재 출신 세계적 소프라노로 우뚝 서야 그런 기회가 올테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김지을 기자 dok2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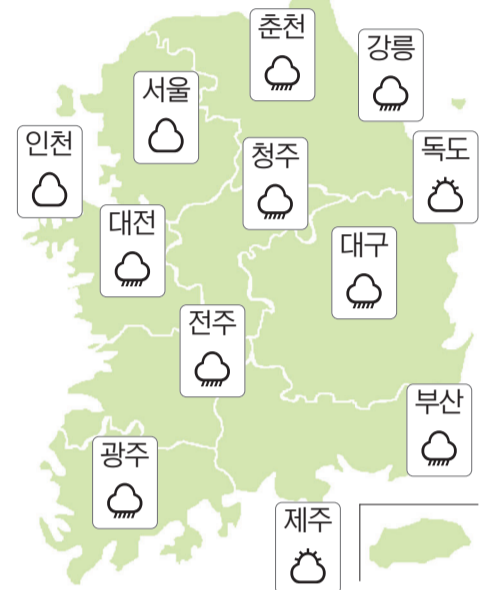
해돋이	05:27	달 뜨기	00:57
해질	19:49	달 지기	15:00

### 물 폭탄

광주·전남에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다.

광주	비	25/30	보성	비	23/28
목포	비	24/30	순천	비	25/30
여수	비	24/27	영광	비	24/30
나주	비	24/30	진도	비	24/29
완도	비	25/30	전주	비	25/30
구례	비	24/31	군산	비	24/29
강진	비	25/30	남원	비	24/30
해남	비	25/30	축산도	비	22/27
장성	비	24/30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북)	1.5~2.5	1.5~2.5
	면바다(남)	1.5~2.5	1.5~2.5
남해서부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서)	1.0~2.0	1.0~2.0
	면바다(동)	1.0~2.0	1.0~2.0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2:17	09:17
		14:49	22:15
여수		10:37	04:13
		23:29	17:24

###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낮음	좋음

### ◇ 주간 날씨

	13(목)	14(금)	15(토)
	25/29	25/29	25/29
	16(일)	17(월)	18(화)
	25/31	25/31	25/31

## 화순전남대병원 ‘미래형 암 전문병원’ 심포지엄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정용연) 미래의료연구단은 지난 10일 병원 대강당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형 암 전문병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장성 쌀과자 제조 ‘올바름’ 독도사랑 600만원 기부

장성소제 쌀과자 제조업체 올바름은 지난 10일 독도사랑운동본부에 600만원 상당의 쌀과자를 기탁했다.

〈사진〉 독도사랑운동본부에 전달된 쌀과자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올바름은 이번 쌀과자 기부를 위해 포장지 뒷면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문구와 독도 사진을 붙여 넣었다.

김정관 올바름 대표는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상징인 독도 수호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부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울릉군민과 함께하는 2023 러브 독도 페스티벌’을 맞아 진행됐다.

## 광주시교육청-시산림조합 생태친화학교 조성 협약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일 광주시산림조합과 생태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학생 중심의 생태친화적인 학교와 숲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 농협은행 광주본부 취약계층 여름용품 전달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11일 광주 지역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선풍기 100대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이하 적십자)에 기부했다. 〈사진〉

이번에 전달된 선풍기는 매월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된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기부금으로 구입했다. 기부물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을 통해 온열 질환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성신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은 “연이은 장마와 폭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지역 내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 알림

- ▲스마트폰도 배우고, 인생2막 정보 공유 모임=완전 무료. 60대 이상 초보자 환영. 스마트폰 기초부터 영상편집까지 배우기+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정보 나누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12시, 금남로 1가 예정. 010-2626-5018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고교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속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

- 코올, 히로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강추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애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